

- 주요 뉴스: 파월 의장, 정책 조정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 연준 국 이사 해임 언급
 - 미국 정부, 인텔 지분 10% 취득
 - Fitch, 미국 신용등급 'AA+' 유지. 다만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등급 제약
 - 러시아, 푸틴-젤렌스키 정상회담 계획 아직 없어. 미국과는 관계 개선 모색
 - 국제금융시장: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 시사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심리 강화
 - 주가 상승[+1.5%], 달러화 약세[-0.9%], 금리 하락[-8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감 증대 등으로 사상 최고치 근접
유로 Stoxx600지수도 약세 출발했으나 파월 의장 연설 이후 상승 전환
 - 환율: 달러화지수는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으로 큰 폭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1.0%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로 하락
독일도 파월 의장 연설, 2분기 GDP 예상 하회 등으로 하락
- ※ 뉴욕 1M NDF 증가 1381.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4.2원, 0.1% 상승). 한국 CDS 하락

		8/22일	8/21일	전일대비			8/22일	8/2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466.9	6,370.2	+1.52%	국채 금리 10y	미국	4.25%	4.33%	-8bp
	유럽	561.30	559.07	+0.40%		독일	2.72%	2.76%	-4bp
	중국	3,825.8	3,771.1	+1.45%		영국	4.69%	4.73%	-4bp
	일본	42,633	42,610	+0.05%	CDS 5y	한국	19bp	21bp	-2bp
	한국	3,168.7	3,141.7	+0.86%		중국	42bp	44bp	-2bp
환율	달러지수	97.72	98.64	-0.92%	위험 지표	EMBI+	345	342	+3bp
	유로화	1.1718	1.1606	+0.97%		VIX	14.22	16.60	-14.34%
	엔화	146.94	148.37	+0.97%		WTI유	63.66	63.52	+0.22%
	위안화	7.1675	7.1805	+0.18%	원자재	구리	445.9	444.4	+0.35%
	원화	1,383.5	1,398.4	+1.11%		금	3,371.9	3,338.7	+0.9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파월 연준 의장, 정책 조정 가능성 시사. 트럼프 대통령, 연준 쿡 이사 해임 언급

-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 리스크는 상방, 고용 리스크는 하방으로 치우쳐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실업률 등 노동시장 지표의 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책기조 변경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
-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동공급과 수요 모두 크게 둔화된 특이한 형태의 균형이며, 관세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누적될 것이라고 진단
- 아울러 올해 framework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물가목표제로의 회귀 ▲실효하한이 경제 환경의 결정적 특징이라는 표현 삭제 ▲최대 고용에서 부족분 표현 삭제 ▲고용과 물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한다는 문구 수정 등을 발표
-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며 노동시장이 크게 약화한다면 더 완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평가
- 보스턴 연은의 수전 콜린스 총재도 인플레이션에 비해 노동시장 위험이 약화하기 시작하면 긴축정도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해질 것이라며, 다음 FOMC에서 무엇을 할지 결정한 바 없지만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언급
- 바클레이즈는 파월 의장이 9월 FOMC에서 25bp 금리 인하로 기울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하며 내년 1, 3, 6월 등 총 세 번의 후속 25bp 인하를 전망. 도이체방크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다며 9월 인하로 전망을 변경. BNP파리바는 작년부터 유지해 온 연내 동결 전망을 폐기하고 9월에 이어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
- 반면 노무라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9월 25bp 금리 인하 전망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도 다음 달 고용보고서가 양호하거나 높은 인플레이가 발표될 경우 동결이 가능하며, 다시 부진할 경우 5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평가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문서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연준의 리사 쿡 이사가 사임하지 않을 경우 해임할 것이라고 언급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정부, 인텔 지분 10% 취득

- 러트닉 상무장관은 22일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취득했다고 밝히고, 이번 역사적 합의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
-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10%(약 \$100억)를 완전히 소유·통제하며, 앞으로 이런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언급

■ Fitch, 미국 신용등급 'AA+' 유지. 다만 높은 재정적자 및 정부부채가 등급 제약

- 美 신용등급은 경제 규모, 1인당 소득, 역동적 기업환경 등의 혜택을 받는다면서도 높은 재정적자와 이자부담, 높고 증가하는 정부부채 수준 등이 신용등급을 제약한다고 평가. 아울러 미국은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부채 부담, 인구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
- GDP 대비 일반정부 적자는 '24년 7.7%에서 '25년에는 관세 수입 급증으로 6.9%로 축소 전망. 하지만 '26년과 '27년에는 7.8%, 7.9%로 재확대 예상

■ 러시아, 푸틴-젤렌스키 정상회담 계획 아직 없어. 미국과는 관계 개선 모색

-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담 의제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의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언급. 한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과의 관계에 '터널 끝 빛'이 보이기 시작했으며, 북극과 알래스카에서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

■ 독일 2분기 GDP, 전기 대비 0.3% 감소하며 시장 예상치(-0.1%) 하회

- 전년 동월 대비로는 0.2% 증가(예상 +0.4%)했으며,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로 확정. 통계청은 6월 제조업과 건설업이 예상보다 약화했으며 서비스 부문의 새로운 데이터로 인해 2분기 최종 소비지출도 하향조정 했다고 설명

■ 이스라엘, 하마스에 모든 인질 석방과 무장해제를 요구하며 강력 경고

- 카츠 국방장관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 격퇴를 위한 이스라엘군의 계획을 승인 했으며, 협상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31, E-mail jsch@kcif.or.kr